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에 의한 병원의 재무비율 특성과 수익성 관계†

심용우* · 이상규**

〈요 약〉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을 분석함으로써 병원의 수익성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재무비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목표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의 2016년과 2017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및 종별, 규모별의 일반적 특성 및 재무비율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 재무지표에 대한 평균값을 통해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의 평균 비교 분석 및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개정된 의료회계기준규칙에 의한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회계정보공시 자료에는 첫째, 재무상태표 통한 총자산, 총부채, 자본총계의 변화를 통한 병원의 규모 및 부채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자본총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손익계산서에서 평균 의료수익의 증가는 미비한 편이며, 평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편이다. 이에 의료기관은 의료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부채비율, 안정성비율, 수익성 비율의 차이가 컸으며, 설립형태에 따라서 국공립병원, 학교법인병원, 의료법인·재단법인병원의 평균 재무비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경영의 수익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병원의 의료수익순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논문접수일: 2019년 08월 09일 수정일: 2019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19년 11월 01일

*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겸임교수(제1저자), syw6809@naver.com

**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g2409@cup.ac.kr

I. 서론

병원은 의료서비스 활동과 의료서비스 교육 및 의료예방 등 의료 행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오늘날 의료서비스시장은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병원, 학교법인병원, 개인병원 등의 민간병원 중심으로 병원의 대형화 및 특정 전문병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로 인해 병원간의 경쟁과 낮은 건강보험수가 인상률, 과도한 임금상승률, 높은 물가 상승률과 국가의 저수가 보험 정책으로 인하여 병원 경영의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석(2004)과 이정우·최영진(2009)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은 의약분업실시, 진료비 신용카드결제, 진료비 청구심사강화 등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은 병원 경영에 악영향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진우(2017)에서는 병원경영 악화로 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광역시별로 병원들의 경영이 점점 격차가 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도 병원경영 성과가 악화되어 지고 있다. 또한 이정우·최영진(2009)에서는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도 병원 경쟁의 심화와 고객의 다양한 욕구 증가, 소비자 중심의 의료정책 및 의료시장의 글로벌화 등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병원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의료시장에서 병원들은 의료의 질 향상, 고객감동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하여 수익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의료 수요가 증감함에 따라 병원조직이 대형화 및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기능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병원 경영환경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병원 경영환경의 투명성 또한 점점 요구되고 있다. 그로 인해 병원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관심이 점차 증대 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병원의 재무비율분석은 재무제표 각 항목간의 비율을 산출하여 병원의 재무 상태나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비율에 의해 병원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재무비율분석은 다양한 병원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영자들은 경영 실적 평가와 경영의 합리화, 투자결정 또는 자금조달 결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비율 분석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병원의 재무비율과 수익성 관련 분야의 연구는 중요성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유는 병원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 수집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진우(2017)의 선행논문에 의하면 병원의 수익성 지표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병원의 수익성이란 일정회계기간에 걸쳐 환자의 진료와 기타 경영활동을 통해 달성된 경영성과의 일종으로 자본의 조달 및 운용을 통해 획득되어 지는 것으로 투입된 자본과 이익 또는 의료수익과 의료이익의 관계에 의해서 측정되어 진다고 하였다. 조덕영(2012) 연구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시장은 의료개방과 함께 과도한 병상 증축 등으로 병원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지고 있다. 과도한 병원 증축 및 고가의 의료장비의 투자와 다양한 전문 직종간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병원의 경영이 점점 더 악화 되어 지고 있다. 이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 심화되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실질적인 병원들의 재무비율분석을 실행하여 병원경영성과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조덕영(2007)의 연구는 병원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의료이익률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는 소재지, 설립형태, 병상수와 안정성, 활동성, 등의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2003)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설립형태에 따라 이윤추구의 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병원의 설립형태에 따라 학교법인병원, 국공립병원, 의료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 기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병원들의 설립형태별로 수익성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수익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병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채의존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자금 조달 전략이 필요하다.

홍미경(2009)에서는 병원 경영성과 지표로서 수익성 비율은 투자자본 혹은 의료수익에 대한 경영성과의 크기 즉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성은 두 가지 변수로 선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료수익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의료수익 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등이 있으며 두 번째는 투자수익성을 총자산의료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이 있다. 이문재·최만규(2013)는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변수로 하여 병원의 경영성과를 측정하였고 김원중·이해중(1994) 및 정성완(2006)은 병원의 활동성지표와 수익성지표에 관련하여 총자산회전율, 총자본회전율이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의 개정(2015.12.31.)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 법인개설자는 회계정보를 의무공시화 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2016년도 이후 의료기관의 실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재무비율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국세청 결산공시와 달리 실질적으로 좀 더 신뢰성이 높은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및 종별에 따른 병원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신뢰성 높은

분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기관은 설립 운영주체, 투입자원 및 규모, 진료기능, 의학교육 기능, 영리성에 따라 분류된다.

본 논문은 의료기관의 설립형태로 국공립병원, 학교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 및 의료법인병원, 기타의 병원으로 분류하며 의료기관의 종별로 구분하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해 재무비율분석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의거 공시하는 100병상 이상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및 종별 등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공시된 의료기관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평균값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공시된 재무제표의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의 평균적인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여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의료기관의 종별과 설립형태에 따라 주요 재무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종속변수로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로 구성 및 독립변수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활동성, 성장성, 안정성지표를 활용하여 병원의 수익성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의

료기관 회계정보공시)에 의한 병상 수 100병상 이상, 종별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법인개설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에 따른 재무제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의료기관은 설립형태별로 국공립병원, 학교법인병원, 의료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 기타(사회복지재단 등),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으로 2016년의 회계정보공시를 한 263개 병원과 2017년 회계정보공시를 한 267개 병원의 회계정보공시 자료(2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 선정 및 개념

<표 1>과 같이 병원의 재무상태표에서 병원의 재무상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총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비유동 자산, 총부채, 유동부채, 자본총계, 이익잉여금 등을 지표로 사용한다. 그리고 병원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의료외수익, 의료

외비용, 당기순이익 등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병원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비율로 수익성 비율은 선행연구(이혜용·김원중, 1994), 양종현(2013), 조덕영(2012)에서 주로 사용된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의료수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5가지 변수로, 안정성비율로 유동비율, 부채비율, 당좌비율, 비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타인자본의존도의 6가지 변수, 활동성 비율의 총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의 2가지 변수와 성장성비율로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의료수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의 4가지 변수를 아래 같이 정의하고 독립변수로 의료기관의 종별과 설립형태별로 구분하고 이들 변수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특히 성장성지표는 2017년도 회계공시자료 중 2016년 자료가 연속하는 262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종속변수	수익성	의료수익의료이익률	$(\text{의료수익}/\text{의료이익}) \times 100$
		의료수익순이익률	$(\text{당기순이익}/\text{의료수익}) \times 100$
		총자산의료이익률	$(\text{의료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총자산순이익률	$(\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독립변수	재무상태표	총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총부채, 유동부채, 자본총계, 등	
	손익계산서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당기순이익, 등	
	재무비율	인건비율, 이자비용비율, 입원수익비용, 외래수익비용 등	
	활동성	총자산증가율	$(\text{의료수익}/\text{총자산})$
		유형자산증가율	$(\text{의료수익}/\text{유형자산})$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text{당기총자산} - \text{전기총자산})/\text{전기총자산}) \times 100$
		의료수익증가율	$((\text{당기의료수익} - \text{전기의료수익})/\text{전기의료수익}) \times 100$
		자기자본증가율	$((\text{당기자본총계} - \text{전기자본총계})/\text{전기자본총계}) \times 100$
		순이익증가율	$((\text{당기순이익} - \text{전기순이익})/\text{전기순이익}) \times 100$
	안정성	유동비율	$(\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당좌비율	$(\text{당좌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부채비율	$(\text{총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비유동비율	$(\text{비유동자산}/\text{차본총계})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text{자본총계}/\text{총자산}) \times 100$	
타인자본의존도		$(\text{총부채}/\text{차본총계}) \times 100$	

3.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분석처리는 SPSS WIN(ver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의료기관의 종별의 평균 재무비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정과 의료기관의 설립형태별 재무비율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ANOVA(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회귀분석을 이용해 병원 경영의 수익성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표 2>는 분석대상의 의료기관의 특성별 분포를 나타내며 2016년 회계공시 263개 병원과 2017년 회계공시 267개 병원을 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의 종별로는 2016년도 자료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43개(16.3%), 종합병원 220개(83.7%)로 분류되었으며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 43개

(16%), 종합병원 224개(83.9%)로 분류되었다. 의료기관의 설립형태의 분포는 2016년도 국공립병원 65개(24.7%), 학교법인병원 63개(24.0%), 재단법인병원 및 의료법인병원, 기타가 135개(51.3%)로 2017년도 국공립병원 66개(24.7%), 학교법인병원 62개(23.2%), 재단법인병원 및 의료법인병원, 기타가 139개(52.1%)로 2년간의 설립형태별 분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소재지별 분포는 2016년도 수도권(서울, 경기) 93개(35.4%), 광역시별 71개(27.0%), 비수도권(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99개(37.6%) 2017년도 수도권(서울, 경기) 96개(36.0%), 광역시별 70개(26.2%), 비수도권(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101개(37.8%)로 분포가 유사하였다.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별 분포는 2016년도 300병상 미만 111개(42.2%), 300병상 이상에서 500병상 미만 59개(22.4%), 500병상 이상에서 1000병상 미만 76개(28.9%), 1000병상 이상 17개(6.5%), 2017년도 300병상 미만 115개(43.1%), 300병상 이상에서 500병상 미만 60개(22.5%), 500병상 이상에서 1000병상 미만 74개(27.7%), 1000병상 이상 16개(6.0%)로 대형병원들의 병상 규모가 소폭 감

<표 2>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43	16.3	43	16.1
	종합병원	220	83.7	224	83.9
의료기관 설립형태	국공립법인병원	65	24.7	66	24.7
	학교법인병원	63	24.0	62	23.2
	의료법인 및 재단법인병원	135	51.3	139	52.1
의료기관 소재지	수도권별 병원	93	35.4	96	36.0
	광역시별 병원	71	27.0	70	26.2
	비수도권별 병원	99	37.6	101	52.1
의료기관 병상규모	10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	111	42.2	115	43.1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59	22.4	60	22.5
	500병상 이상~1000병상 미만	76	28.9	74	27.7
	1000병상 이상	17	6.5	16	6.0
계	263	100.0	267	100.0	

<표 4> 의료기관의 재무비율에 따른 기초통계량

(단위: 백만원/회)

구분	2016년도(N=263)				2017년도(N=267)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131.1	137.9	-306.0	877.0	132.1	147.2	-322.7	976.6
	당좌비율	125.5	132.9	-314.5	790.1	127.4	143.3	-330.7	973.3
	부채비율	791.6	9926.7	-30250	152912	1123.8	15708.3	-10344	255801
	자기자본비율	15.9	75.1	-506.4	399.9	3.3	158.3	-2205.8	407.5
	타인자본의존도	85.4	76.4	-188.6	606.4	96.6	158.4	-307.5	2305.8
	비유동비율	686.5	7354.4	-23275	113987	1018.5	13507	-7358.0	220329
활동성 비율	총자산회전율	1.33	1.30	-11.21	5.66	1.92	9.23	-16.1	151.0
	유형자산회전율	5.39	18.29	-12.94	260	4.66	9.98	0.21	99.0
수익성 비율	의료수익의료이익률	1.3	9.9	-81.3	23.3	0.46	8.72	-36.55	21.79
	의료수익순이익률	1.0	7.3	-83.4	19.2	0.14	5.81	-46.31	18.26
	총자산의료이익률	0.5	16.5	-80.2	114.9	-0.01	50.83	-203.1	741.6
	총자산순이익률	1.9	11.6	-39.1	111.3	1.71	49.9	-206.2	772.7
	자기자본순이익률	21.6	236.8	-1925.4	2494.4	7.78	93.18	-539.3	1280.5
성장성 비율	총자산증가율					8.76	49.54	-109.6	752.1
	자기자본증가율					76.94	1470.0	-6069.0	22893.4
	의료수익증가율					7.97	29.92	-10.0	479.5
	순이익증가율					80.36	1544.1	-5183.6	14311.3

소된 경향을 나타냈다.

2. 의료기관의 재무지표에 따른 평균분석

<표 3>은 2016년도, 2017년도 공시된 의료기관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주요 지표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나타내는 기초통계량이다.

회계정보공시 자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2016년도, 2017년도 재무 상태는 평균 총자산은 각각 1066억원에서 1142억원 규모로 증가 하였으며, 총부채의 평균 또한 704억원에서 78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자본총계의 평균은 362억원에서 35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의료기관의 총자산을 통해 병원의 규모 및 부채의 규모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자기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자본 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

여 주고 있다.

의료기관의 특성상 평균 총자산은 평균 유동자산 중 평균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평균 비유동자산에서는 평균 유형 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평균 총부채에서는 평균 유동부채가 평균 비유동부채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병원들이 평균 당기부채에 의존함을 보여 주고 있다.

평균 이익잉여금은 (-)값을 가지고 있어 평균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유동자산, 평균 비유동자산은 국공립 병원이 의료법인병원 보다 증가함을 보여주며 또한 평균 유형자산, 평균 유동부채, 평균 비유동부채 등이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7년도 자료 기준으로 평균 의료수익은 1254억원, 평균 의료비용도 1221억원, 평균 의료이익은 34억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의료기관의 의료 활동을 통한 이익창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의료비용도 여전히 인건비의 비용이 크며 재료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며 그 중 관리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의 크기가 커서 사실상 의료 활동을 통한 의료이익의 창출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의 특성으로 의료외수익이 의료외비용보다 크게 나타나며 병원들이 의료이익의 부족을 의료외활동 및 의료부대수익의 창출로 보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4억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수익 창출을 위한 경영 개선의 재고가 필요하다.

3. 의료기관의 재무비율에 따른 차이분석

재무비율분석의 특성으로 재무비율에서 안정

성을 나타내는 비율은 유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이 있고 수익력을 나타내는 비율로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이 있으며 병원의 규모와 이익의 성장을 나타내는 성장성비율로 표현된다. 유동성비율의 변수로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타인자본의존도, 비유동비율(고정비율)을 사용하고 활동성비율로 총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을 사용한다. 수익성비율에는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의료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이 있고, 성장성비율로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의료수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이 있다.

2016년도, 2017년도 회계정보공시 자료에 의한 병원 263개, 267개의 의료기관의 유동성비율은 평균 유동비율이 각각 131.1%, 132.1%를 확보하고 있었다. 병원의 특성상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의 차이가 낮았다. 이는 재고자산의 비중이 적기

<표 3> 의료기관의 재무지표에 따른 기초통계량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도(N=263)				2017년도(N=267)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재무상태표	총자산	106661.9	172579.0	-4998.0	1393958.6	114274.9	181727.0	-2420.2	1399225.0
	유동자산	31340.1	49221.6	-45766.4	382186.4	33969.6	52264.6	-44897.6	384017.9
	비유동자산	75321.0	133498.6	-1685.8	1237212.4	80305.3	140826.8	-1504.9	1227658.9
	투자자산	4388.2	21079.3	0	254184.7	4744.4	25481.3	0	345717.2
	유형자산	67448.9	122090.3	-1866.9	1201447.4	72336.1	128565.7	183.3	1194891.0
	총부채	70439.2	108340.6	1494.4	808597.7	78791.5	119057.9	2927.0	831083.0
	유동부채	31042.8	58524.7	897.5	719393.6	34643.7	62579.1	983.6	773131.4
	비유동부채	25223.4	43150.7	-3163.9	383818.2	27968.9	48566.5	-9525.0	378548.9
	자본총계	36273.9	82532.7	-84412.2	610888.6	35503.7	83593.5	-94976.6	612404.9
	기본금	39962.2	100754.6	-2450.0	1217881.7	39855.9	102966.5	-779.0	1263813.7
이익잉여금	-8624.7	69539.8	-704073.6	566139.0	-9190.3	76421.4	-764667.2	617652.4	
손익계산서	의료수익	118635.7	174946.4	2675.5	1521586.3	125499.0	184956.5	9012.9	1587512.7
	의료비용	114931.7	169614.2	4851.4	1427562.7	122131.0	179428.7	9464.4	1506310.4
	의료이익	3804.0	12678.6	-50170.6	94023.5	3368.0	12920.8	-57372.9	81202.3
	의료외수익	7126.6	17325.8	8.44	154268.7	7382.9	18172.9	41.3	161510.8
	의료외비용	5245.1	14200.4	4.65	138256.7	5653.3	15445.6	0.53	143930.6
	당기순이익	993.9	6873.8	-35204.4	50159.8	428.6	7455.2	-60593.6	51513.3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2016년도 평균 부채비율 791%에서 2017년 평균 부채비율 1123%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안정성비율이 상당히 악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도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3%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의 자본상태가 악화됨이 확인되며 사실상 부도상태인 실제 자본잠식의 상태로 경영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활동성비율로 2016년도 평균 총자산회전을 1.3회에서 2017년도 평균 총자산회전을 1.9회로 증가됨은 총자산을 활발하게 사용하여 의료수익을 창출함을 보여준다. 2016년도 평균 유형자산회전을 5.3회에서 2017년도 평균 유형자산회전을 4.6회로 감소되어 유형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익성비율에서 2016년도 평균 의료수익의료이익률 1.3%에서 2017년도 평균 의료수익의료이익률 0.5%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2016년도 평균 의료수익순이익률 1.0%에서 2017년도 평균 의료수익순이익률 0.14%로 2016년도 평균 총자산의료이익률 0.5%에서 2017년도 평균 총자산의료이익률 -0.01%로 2016년도 평균 총자산순이익률 1.9%에서 2017년도 평균 총자산순이익률 1.7%로 2016년도 평균 자기자본순이익률 21.6%에서 2017년도 평균 자기자본순이익률 7.9%로 감소하였다. 이는 의료 활동 및 투자활동, 금융비용, 의료비용 등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성장성비율로 2017년도 기준으로 평균 총자산 증가율 8.8%, 평균 자기자본증가율 76.9%, 평균 의료수익증가율 7.97%, 평균 순이익증가율 80.3%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도 기준 의료기관 267개 병원 중에 순이익증가율이 (-)인 병원이 63%로 나타났으며 빠른 시일 내 병원의 구조조정과 자본구조의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실적인 의료수익의 확보와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인건비의 절감 및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병원들의 자구 보력을

통한 경영 활성화함이 필요하다.

4.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차이분석

다음 <표 5>와 같이 병원의 종별을 2016년 회계정보공시자료인 상급종합병원(N=43), 종합병원(N=220)과 2017년 회계정보공시자료인 상급종합병원(N=43), 종합병원(N=224)으로 구분하여 독립 t-test를 시행하였다.

2016년 자료에서 안정성비율 중에 평균 유동비율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은 128.0%, 종합병원은 131.7%로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당좌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25.4%, 종합병원이 125.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평균 부채비율도 상급종합병원이 372.6%, 종합병원이 873.5%로 상급종합병원이 두 배 이상 낮았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1.7%, 종합병원이 14.7%로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평균 타인자본의존도는 상급종합병원이 78.2%, 종합병원이 86.8%로 상급종합병원이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비유동비율도 상급종합병원이 321.7%, 종합병원이 757.7%로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활동성 비율에서 평균 총자산회전은 상급종합병원 1.51회, 종합병원이 1.29회로 상급종합병원의 총자산회전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유형자산회전은 상급종합병원이 3.81회, 종합병원이 5.70로 상급종합병원의 유형자산회전이 낮게 나타났다.

수익성 비율에서 평균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상급종합병원이 4.01%, 종합병원이 0.77%로 상급종합병원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49$). 평균 의료수익순이익률은 상급종합병원이 0.27%, 종합병원이 1.12%로 상급종합병원이 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 총자산의료이익률은 상급종합병원이 6.39%, 종합병원이 -0.67%로 상급종합병원이 월

<표 5>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차이분석

(단위: 백만원/회)

구분	의료기관 종별(2016년도)		t(p)	의료기관 종별(2017년도)		t(p)
	상급종합병원 (N=43)	종합병원 (N=220)		상급종합병원 (N=43)	종합병원 (N=224)	
유동비율	128.0	131.7	-0.160 (0.873)	136	131.3	0.190 (0.850)
당좌비율	125.4	125.5	-0.001 (0.999)	133.2	126.3	0.289 (0.772)
부채비율	372.6	873.5	-0.664 (0.507)	537.6	1236.3	-0.600 (0.549)
자기자본비율	21.7	14.7	0.837 (0.404)	20.2	0.10	1.542 (0.124)
타인자본의존도	78.2	86.8	-1.022 (0.309)	79.7	99.9	-1.543 (0.124)
비유동비율	321.7	757.7	-0.785 (0.433)	427.2	1132.0	-0.708 (0.480)
총자산회전율	1.51	1.29	1.472 (0.144)	1.49	2.00	-0.740 (0.460)
유형자산회전율	3.81	5.70	-1.243 (0.215)	3.61	4.86	-0.752 (0.453)
의료수익의료이익률	4.01	0.79	1.979 (0.049)	4.00	-0.21	2.948 (0.003)
의료수익순이익률	0.27	1.12	-1.038 (0.301)	0.37	0.10	0.279 (0.781)
총자산의료이익률	6.39	-0.67	4.101 (0.000)	5.89	-1.15	1.794 (0.074)
총자산순이익률	0.22	2.18	-1.444 (0.152)	0.48	1.94	-0.390 (0.691)
자기자본순이익률	9.96	23.9	-0.758 (0.449)	3.93	8.52	-0.599 (0.550)
총자산증가율				9.60	8.59	0.226 (0.821)
자기자본증가율				17.0	88.7	-0.654 (0.514)
의료수익증가율				7.10	8.15	-0.462 (0.645)
순이익증가율				131.2	70.9	0.188 (0.852)

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총자산순이익률은 상급종합병원이 0.22%, 종합병원 2.18%로 상급종합병원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상급종합병원이 9.96%, 종합병원이 23.9%로 상급종합병원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2017년 자료에서 안정성비율을 보면 평균 유동비율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136.0%, 종합병원 131.7%로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당좌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33.2%, 종합병원이 126.3%로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평균 부채비율도 상급종합병원이 537.6%, 종합병원이 1236.3%로 상급종합병원이 보다 낮았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0.2%, 종합병원이 0.10%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 타인자본의존도는 상급종합병원이 79.7%, 종합병원 99.9%로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비유동비율도 상급종합병원이 427.2%로 종합병원 1132.0%로 보

다 낮게 나타났다. 활동성 비율에서 평균 총자산회전율은 상급종합병원 1.49회로 종합병원의 2.00회 보다 총자산회전율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평균 유형자산회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61회로 종합병원 4.86회 보다 유형자산회전율이 빠르게 나타났다. 수익성 비율에서 평균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상급종합병원이 4.00%로 종합병원 -0.21%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의료수익순이익률은 상급종합병원이 0.37%로 종합병원 0.10%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 총자산의료이익률은 상급종합병원이 5.89%로 종합병원 -1.15%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총자산순이익률은 상급종합병원이 0.48%로 종합병원 1.94%로 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상급종합병원이 3.93%로 종합병원 8.52%로 보다 낮게 나타났다. 2016년 자료대비 2017년의 성장률 비율에서 평균 총자산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이 9.60%로 종합병원 8.59%로 보다 높았으며, 평균 자기자본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7.0%로 종합병원 88.7%로 보다 낮게 나타났다. 평균 의료수익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이 7.10%로 종합병원 8.15%로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순이익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31.2%로 종합병원 70.9%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지만 종합병원의 수익성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2016년도, 2017년도 회계공시자료 중에 의료수익의료이익률($p < 0.05$)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의료기관의 설립형태에 따른 차이분석

다음 <표 6>은 2016년도, 2017년도 회계정보공시 자료를 의료기관의 설립형태별로 변수들을 일원배치분산으로 분석하였다. 2016년도, 2017년도 의료기관의 설립형태로 국공립병원, 학교법인

병원, 재단법인병원 및 의료법인병원 기타로 3분류로 구분하였다.

2016년도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의 차이분석은 국공립병원, 학교법인병원, 의료법인병원 및 재단법인병원, 기타는 유동비율, 당좌비율, 자기자본비율, 타인자본의존도, 총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부채비율, 비유동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17년도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의 차이분석은 유동비율, 당좌비율, 유형자산회전율,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의료이익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타인자본의존도, 비유동비율, 총자산회전율,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익성 지표인 성장성비율은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의료수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의료기관 설립형태별로는 대부분의 재무비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6. 의료기관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회귀분석

<표 7>은 병원의 수익성 지표의 분석을 위해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병원 경영의 수익성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서는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총자산회전율, 인건비비율, 이자비용비율, 외래수익비율, 병상규모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

<표 6> 의료기관의 설립형태에 따른 차이분석

(단위: 백만원/회)

구분	의료기관 설립형태(2016년도)			F(p)	의료기관 설립형태(2017년도)			F(p)
	국공립 법인병원 (N=65)	학교법인 병원 (N=63)	의료법인 및 재단법인 (N=135)		국공립 법인병원 (N=66)	학교법인병원 (N=62)	의료법인 및 재단법인 (N=139)	
유동비율	187.2	139.6	100.1	9.480 (0.000)	190.0	156.3	93.7	11.513 (0.000)
당좌비율	178.8	136.5	94.6	9.670 (0.000)	181.9	153.1	90.1	11.274 (0.000)
부채비율	-716.9	687.8	1566.4	1.167 (0.313)	-276.9	351.8	2133.2	0.623 (0.537)
자기자본비율	-22.0	15.3	34.5	13.678 (.000)	-28.3	12.1	14.4	1.771 (0.172)
타인자본의존도	125.8	84.6	66.2	14.726 (0.000)	128.4	87.8	85.8	1.775 (0.172)
비유동비율	-370.4	543.3	1262.1	.098 (0.335)	-112.1	294.9	1878.1	0.600 (0.550)
총자산회전율	1.97	1.53	0.93	16.810 (0.000)	1.99	1.53	2.1	0.071 (0.932)
유형자산회전율	14.2	3.68	1.94	11.046 (0.000)	10.7	3.6	2.2	19.128 (0.000)
의료수익의료이익률	-6.26	3.06	4.12	31.592 (0.000)	-8.21	4.52	2.76	65.801 (0.000)
의료수익순이익률	0.95	-1.78	2.29	7.097 (.001)	-1.19	-1.08	1.32	6.252 (0.002)
총자산의료이익률	-12.7	5.67	4.44	35.445 (0.000)	-20.18	6.10	6.82	7.226 (0.001)
총자산순이익률	2.81	-1.68	3.06	3.960 (0.020)	-5.04	-1.58	6.39	1.355 (0.260)
자기자본순이익률	2.64	23.0	30.1	0.295 (0.745)	0.33	-3.27	16.25	1.223 (0.296)
총자산증가율					5.45	10.10	9.70	0.189 (0.828)
자기자본증가율					27.76	23.81	125.71	0.155 (0.857)
의료수익증가율					6.99	7.86	8.49	0.055 (0.947)
순이익증가율					-43.88	497.2	-35.88	2.670 (0.071)

는 요인으로 분석 되었으며, 총자산의료이익률은 자기자본비율, 총자산회전율, 총자산증가율, 인건비비율, 이자비용비율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의료수익순이익률에서는 자기

자본비율, 총자산회전율, 인건비비율, 의료부대이익비율, 병상규모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총자산순이익률에서는 자기자본비율, 총자산회전율, 인건비비율, 이자비용비율이 수익성에

<표 7> 의료기관의 수익성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단위: %/회)

구분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B	t-값	유의 확률	B	t-값	유의 확률	B	t-값	유의 확률	B	t-값	유의 확률
상수	35.40	13.74	0.000	33.40	4.50	0.000	9.640	3.902	0.000	-2.97	-0.451	0.652
유동비율	0.005	1.94	0.053	-0.002	-0.270	0.788	.004	1.507	0.133	-0.005	-0.758	0.449
비유동비율	-2.881 E-05	-1.18	0.238	-1.396 E-06	-0.020	0.984	-8.880 E-06	-0.380	0.704	-3.248 E-06	-0.052	0.958
자기자본비율	0.012	2.18	0.030	0.214	13.81	0.000	.019	3.780	0.000	0.186	13.50	0.000
총자산회전율	0.188	2.05	0.041	8.196	31.00	0.000	.307	3.482	0.001	7.934	33.78	0.000
유형자산회전율	-0.015	-0.428	0.669	-0.136	-1.34	0.180	-.025	-0.735	0.463	0.009	0.105	0.916
총자산증가율	0.023	1.276	0.203	0.154	2.95	0.003	-.010	-0.567	0.571	0.082	1.772	0.078
의료수익증가율	0.116	0.912	0.363	-0.336	-0.913	0.362	.122	0.999	0.319	-0.258	-0.790	0.430
인건비비율	-0.659	-16.0	0.000	-0.942	-7.95	0.000	-1.82	-4.61	0.000	-0.213	-2.02	0.044
이자비용비율	0.937	2.552	0.011	3.202	3.03	0.003	.309	0.878	0.381	2.880	3.047	0.003
입원수익비율	-0.026	-0.323	0.747	0.052	0.220	0.826	-.064	-0.821	0.412	0.109	0.523	0.601
외래수익비율	-0.163	-2.95	0.003	0.034	0.213	0.831	-.046	-0.870	0.385	0.005	0.033	0.974
의료부대이익비율	-7.893 E-05	-0.156	0.876	0.000	-0.331	0.741	.001	2.568	0.011	0.001	0.638	0.524
병상규모	-0.004	-3.86	0.000	-0.004	-1.42	0.155	-.002	-2.36	0.019	-0.003	-1.00	0.318
R ²	0.655			0.918			0.255			0.933		
Adjusted R ²	0.637			0.914			0.216			0.930		
F(p)	36.246(0.000)			214.553(0.000)			6.532(0.000)			266.589(0.000)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수익성지표에서 보듯 자기자본비율, 총자산회전율, 인건비비율, 이자비용비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병원의 자본건전성이 중요함을 나타내며, 총자산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의 경영성과 분석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때 병원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인건비 관리가 중요함을 나타낸다. 병원 경영의 대형화 및 고가장비 등의 도입으로 인한 과도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 또한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에 의한 병상 수 100병상 이상, 병원 종별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법인개설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회계기준공시로 인한 2016년 회계정보공시 자료 263개 병원과 2017년 회계정보공시 자료 267개 병원의 회계정보공시 자료(2년)를 활용한 최초의 분석이다. 공시된 병원들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재무비율을 확인하고 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병원의 수익성 지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재무지표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병원의

경영의 수익성 재고와 병원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개정된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된 회계자료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개설자가 법인인 의료기관으로 2016년도는 263개 병원, 2017년에는 267개로 병원의 병상규모 및 개설이 소폭 증가현상을 나타냈다.

둘째, 공시된 재무상태표의 평균 자료를 통해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통해 병원의 규모 및 부채의 규모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자기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자본 구조의 악화로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손익계산서의 2017년도 기준으로 평균 의료수익은 1254억원, 평균 의료비용도 1221억원이며 평균 의료이익은 34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의료기관의 의료 활동을 통한 이익창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균 당기순이익은 4억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의 의료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수익 창출을 위한 경영 개선의 재고가 필요하다.

넷째, 병원들은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3%에 불과하며 이는 의료기관의 자본상태가 악화됨이 확인되고 사실상 부도상태인 자본잠식 상태인 병원들이 상당수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의료수익의 확보와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인건비의 절감 및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병원들의 자구 노력을 통한 경영 활성화함이 필요하다.

다섯째, 종별 의료기관의 재무비율의 비교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부채비율 등이 안정성비율과 수익성 비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의 수익성이 더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재무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의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의료기관의 설립 형태별 재무비율의 분석 결과, 국공립병원과 학교법인병원 그리고 의료법인병원의 주요재무비율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설립형태별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에 따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을 구분하여 분석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일곱째, 의료수익순이익률은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비율, 입원수익비율 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이며, 유형자산회전율, 인건비비율 변수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총자산순이익률은 총자산회전율, 입원수익비율 변수와는 유의한 양(+)의 관계이며, 자기자본비율, 인건비비율 변수는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종별 및 설립형태, 병상 규모, 등을 활용하여 병원의 평균 재무비율로 경영분석과 병원경영의 수익성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의 국세청 결산공시 자료나 대한병원협회의 일부 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신뢰성이 확보된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실제 재무제표의 재무비율을 활용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활동성지표, 성장성비율을 분석해 봄으로써 의료기관의 현 시점과 합리적인 경영운영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공시된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병원의 재무 상태와 병원경영의 수익성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병원들의 의료수익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수익의 효율과 의료서비스 활동에 대한 의료비용이 의료수익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투자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과 개선 방안들을 제공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지형·하오욱·이해용·손태용(2005), “중합병원 수익성에 미치는 영양요인 분석”, *병원경영학회지*, 10(3), 45-66.
- 김원중·이해용(1994), “병원의 수익성 결정요인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4(1), 123-137.
- 박종영(2007), “지방의료원의 재무성과 영향요인”, *병원경영학회지*, 12(3), 47-67.
- 박초희·이진우(2015), “중합병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3(11), 267-276.
- 서상윤·차재빈·이훈영(2012), “병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8(2), 1-19.
- 서창진·장동민·양종현(2010), “대학병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병원경영학회지*, 15(40), 43-62.
- 이진우(2017), “수도권 중합병원과 비 수도권 중합병원의 재무성과 비교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1(1), 11-25.
- 이윤석(2003), “병원의 수익성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진우(2017), “지방의료원의 운용효율성 평가에 따른 재무성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4), 614-623.
- 이문재·최만규(2013), “지방의료원 재무비율 지표들간의 구조적인 관계분석”, *대한경영학회지*, 26(6), 1517-1530.
- 이상구(2015), “거시적 경제요인이 보건의료산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정보학회지*, 34(4), 67-81.
- 이정우·양종현(2017), “지방의료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1(3), 1-11.
- 이현실·이윤석·최만규(2004), “민간병원의 수익성 관련요인”, 19(1), 22-45.
- 양종현(2016), “최근 10년간 대학병원 경영성과 비교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0(3), 13-25.
- 양종현(2013),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계 분석”, *병원경영학회지*, 18(3), 43-61.
- 조덕영(2007), “병원의 수익성 평가 측정지표 간의 차이 연구”, *국제회계연구*, 18, 127-146.
- 조덕영(2012) “중합병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4), 111-120.
- 정명진·서창진·임정수·오대규(2012), “중합병원의 규모별 수익성 영향요인 연구”, *국제회계연구*, 41, 265-292.
- 장동민·양종현(2011), “대학병원의 재무비율과 수익성 관계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7(2), 1-17.
- 정범석(2005), “병원경영의 수익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지* 0(17), 107-133.
- 최영진·이정우(2009), “전문병원의 시장지향성이 고객지향성, 직업전문성, 직무만족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병원경영학회지*, 14(1), 1-22.
- 하옥근·정용모(2013), “국립대학교병원의 투자효율 및 투자효율과 수익성 관계”, *대한경영정보학회지*, 32(1), 44, 135-151.
- 황인경·정성완·정두채(2006), “의원의 수익성 결정요인”, *한국병원경영학회지*, 11(1), 54-99.
- 홍미영·이해중·이동원·주현실(2009), “지방의료원 수익성과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한국병원경영학회지*, 14(2), 1-20.

Abstract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atios and profitability correlation of hospitals by disclos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atio by disclos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

Shim, Yong-Woo[†] · Lee, Sang-G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hospitals by analyzing the ratio of stability, profitability ratio, and growth rate through the financial ratios of medical institutions using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data of medical institutions, financial status table and profit and loss statement.

The main goal is to analyze and analyze financial statements of medical institutions' accounting information in 2016 and 2017, analyze the difference and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ratios by type, type and size of medical institutions,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institutions were identified. The ratio of stability, profitability, and growth rate through financial ratio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dical profit margin, the total asset profit margin, the medical profit margin rate, and the net profit margin of the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the financial ratios of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data of medical institution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ize of the hospital and the size of the debt through the change of assets, liabilities and capital of the financial statement are increasing, the size of own capital is relatively decreased,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is getting worse It is showing. Second, the increase in average medical revenues in the income statement is small, and the average increase in net profit is small. Thus, medical institutions were able to confirm the difficulty in creating profits through medical activities. In addition,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in the debt ratio, the stability ratio, and the profitability ratio of the general hospitals and the general hospitals according to the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financial ratios of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school corporation hospitals, I could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correlation was -0.904 between the capital ratio and the total assets turnover ratio, -0.800 between the labor cost ratio and the hospital income ratio, and -0.631 between the labor cost ratio and the foreign profit ratio. In order to improve the management deterioration of hospitals by using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data of medical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have a large effect on the net profit margin of the medical care and the net profit margin of the total assets.

Key Words: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Financial Ratio, Stability Ratio, Profitability Ratio

* First Author, Professor, Health Care Management,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syw6809@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Health Care Management,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g2409@cup.ac.kr